

-(으)ㄴ/는 동 마는 동

건성으로 함 — 하는 동 마는 동, 하는 시늉만

동작은 했지만 겨우 한 정도입니다. 짝을 이루는 동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맞세워, 결과를 그 중간 어딘가에 둡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	-는 동 마는 동	먹다 → 먹는 동 마는 동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동 마는 동
보통 뒤에 오는 것	하다	먹는 동 마는 동 했어요
짝은 고정	동사 동 + 마는 동	한쪽만으로는 불가
평가	언제나 비판적	대충, 탄생각하며
형용사	불가능	바쁜 동 마는 동은 틀림

■ 언제 쓰나요

-는을 붙이는 대상은 동사 어간이며, 그 뒤에 동 마는 동을 잇고 보통 하 다를 씁니다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들다 → 만드는 동 마는 동.

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. 같은 동사와 말다에 각각 동을 붙이며, 한쪽만 쓸 수는 없습니다.

평가는 언제나 비판적입니다. 그 사람이 대충, 탄생각하며, 또는 성의 없 이 했다는 뜻입니다.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나갔어요.

주로 쓰이는 동사는 몇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: 먹다, 듣다, 보다, 자다, 대 답하다 — 일상적인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

■ 예문

- 1 아침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집을 나섰어요.
- 2 설명을 듣는 동 마는 동 하더니 결국 틀렸다.
- 3 밤새 자는 동 마는 동 했더니 머리가 아파요.
- 4 대답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지나가 버렸다.
- 5 급하게 만드는 동 마는 동 해서 모양이 엉망이에요.
- 6 책을 보는 동 마는 동 하면서 탄생각을 했어요.

■ 비교

-다시피 하다
-다시피 하다는 거의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, -는 동 마는 동은 하긴 했지만 했다고 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.

뛰다시피 했어요. (거의 뛰었다) / 먹는 동 마는 동 했어요. (먹는 동 마는 동 했다)

-(으)ㄹ까 말까 하다
말다를 쓰는 비슷한 짜임이지만 시점이 반대입니다. -(으)ㄹ까 말까는 행동하기 전의 망설임이고, -는 동 마는 동은 건성으로 한 행동 자체를 묘사합니다.

먹을까 말까 했어요. (먹을지 말지 망설였다) / 먹는 동 마는 동 했어요. (거 의 먹지 않았다)

대충
부사 대충도 ‘대강’이라는 뜻이지만, 중립적이거나 실용적인 의미일 수 도 있습니다. -는 동 마는 동은 언제나 불평입니다.

대충 먹었어요. (간단히 먹었다) / 먹는 동 마는 동 했어요. (거의 먹지도 않 았다)

■ 주의

- ✗ 급하게 만들~~는~~ 동 마는 동 했어요.
- 급하게 만드~~는~~ 동 마는 동 했어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처럼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아침을 먹~~는~~ 동 하고 나갔어요.
- 아침을 먹~~는~~ 동 마는 동 하고 나갔어요.
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. 마는 동이 없으면 표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.
- ✗ 일이 바쁜 동 마는 동 했어요.
- 일~~을~~ 하는 동 마는 동 했어요.
이 구문은 동작 동사에 씁니다. 형용사는 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